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나만 아는 거짓말

김하연 장편소설

주제어: 폭로, 비밀, 고전소설, 추리, 용서

다산
책방

• 책 소개

『나만 아는 거짓말』은 그 친구와의 갈등, 오해와 편견으로 점철된 어른들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불안과 결핍 등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의 은밀한 층위를 정면으로 파고들며 ‘진실과 용서, 그리고 성장’이라는 본질적인 화두를 던지는 문제작이다. 가볍게 소비되기 쉬운 청소년기의 각종 실수와 미숙함 너머, 실제로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청소년의 시선에서 우리는 과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잘못을 마주한 이들에게 사회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주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건넨다. 장르적 긴장감 속에서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성장의 순간을 포착해 내며,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픈 모든 이에게 건네는 뜨거운 응원이 담긴 성장소설이다.

• 학습 목표

1. 작품을 읽고 작가가 전하고자하는 바를 유추할 수 있다.
2.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꼼꼼하게 정리하며 작품을 읽을 수 있다.
3. 서사의 개연성을 고려한 읽기를 통해 추리소설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학습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읽기 전	가상 모임 만들기
2	읽기 중	모임의 시작 1. (사실적 읽기) 인물 정보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추론하기+인물의 심리 추론하기 3. (감상적 읽기) 모임 활동에 관한 경험 나누기 4. (사실적 읽기) [덥석 떡밥 물기] 사건의 단서 찾기
3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1. (배경지식 쌓기+비판적 읽기) 「목걸이」 줄거리 파악하기+인물의 견해 비판하기 2.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추론하기 3. (배경지식 쌓기+비판적 읽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줄거리 파악하기+소설 장치를 토대로 작품 분석하기 4. (창의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법률 이해하기 5. (사실적 읽기) [덥석 떡밥 물기] 사건의 단서 찾기
4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및 사건의 전말 추론하기 3. (창의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사회 현상 이해하기 4. (사실적 읽기+추론적 읽기) [덥석 떡밥 물기] 사건의 단서 찾기+예측한 결과와 비교하며 읽기
5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등장인물에게 조언하기 3. (사실적 읽기+비판적 읽기) 인물에 대한 정보 파악하기+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4.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및 사건의 전말 추론하기
6		1년 뒤 1. (사실적 읽기) 서사의 흐름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인물에 관한 생각 나누기 3.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및 사건의 전말 추론하기 4. (추론적 읽기) 자신의 예측과 비교하며 읽기
7		두 번째 모임 1. (사실적 읽기+감상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인물에게 조언하기 2. (사실적 읽기+감상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고전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 생각해보기 3. (감상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경험 나누기 4. (배경지식 쌓기+추론적 읽기) 『죄와 벌』 줄거리 파악하기+작품의 주제 파악하기
8	읽기 후	잘못과 반성에 대한 생각 나누기

1. 다음 질문에 답하며 여러분의 취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가장 자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 ▶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
→
- ▶ 여러분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 ▶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했던 활동 중에,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게 있나요?
→
- ▶ 혼자 있을 때 가장 집중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

2. 만약 여러분이 모임을 만든다면 어떤 모임을 만들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3. 2와 아래를 참고하여 모임 공고문을 작성해봅시다.

공고문에 들어가야 할 핵심요소

모임 이름	모임의 성격이 드러나게!
모임 주체 및 목적	무엇을 위해, 왜 이 모임을 만드는지.
대상	누가 참여하면 좋은지.
활동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일정 및 장소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
참여 방법	연락처, 신청 방법 등.
홍보 문구	짧고 강렬하게 핵심을 담아서!

[예시] **고전소설을 함께 읽는 온라인 독서 모임**
〈더 클래식〉 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임 이름: 〈더 클래식〉
- 일정 및 장소: 격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ZOOM(요일과 시간은 조정 가능!)
- 활동 내용: 지정 도서를 미리 읽고 생각 나누기
- 모집 대상:
 - 학교에 못 가서 답답한 중·고등학생
 - 고전소설 읽기에 도전하고 싶지만 혼자서는 자신이 없는 분
 - 문해력을 바탕으로 국어 성적을 올리고 싶은 분
 - 책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은 분

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임 이름:
- 일정 및 장소:
- 활동 내용:
- 모집 대상:

4. 『나만 아는 거짓말』은 독서 모임에서 일어나는 서스펜스 추리소설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필요한 질문을 더 만들어서 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 제목에서 ‘나’는 누구일까?
- ▶ 제목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
- ▶ 작품의 중심인물은 몇 명일까?
- ▶ 표지 속 인물이 손에 든 건 무엇일까?
- ▶ 표지 속 장소는 어디일까?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사실적 읽기) 아래 표를 채워 이번 장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관한 정보를 정리해봅시다.

이름	사는 지역	희망 학과	부모님께 어떻게 허락받았나?	특이사항
이현수	대구		솔직히 말함	
정한별		인서울		
고주원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함	
최은서				포도 알레르기 있음
김유정				

2.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2-1. (추론적 읽기) 밑줄 친 ‘소란’의 내용에 관해 추측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나는 가방과 패딩을 벗어 한쪽에 내려놓고 한별이 가리킨 복도로 향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자 복도 오른편에 문이 반쯤 열린 방이 보였다. 책으로 가득한 풍경에 내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다.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잠시 뒤, 이 서재에서 어떤 소란이 벌어질지.

2-2. (추론적 읽기) 아래 장면에서 유정은 어떤 ‘충동’을 느꼈을지에 관해 추측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책을 들고 창가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다.

안 돼, 이 집에서는 절대로 안 돼.

삽화에 집중하려고 애쓰며 책장을 넘겼다.

3. (감상적 읽기) 다음과 여러분의 경험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1) 일단 참여하고 아니다 싶으면 탈퇴해도 되지 않을까.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화상채팅이라니까.

나는 결국 댓글창을 열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혹시 회원은……

“혹시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수가 소리 높여 웃으며 말을 이었다.

“유정이 댓글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다고! 그날이 마감 일이었는데 그때까지 신청한 회원이 한명이 뿐이었거든. 회원이 너무 적으면 가입하지 않겠다고 할까 봐 무지 걱정했어. 주원이랑 은서가 댓글을 단 건 며칠 뒤였으니까.”

2) 그렇게 3년 전 4월, 〈더 클래식〉의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됐다.

아예 카메라를 끈 사람도,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을 띄워놓은 사람도 있었다. 첫 모임인 데다 얼굴도 보이지 않으니 어색했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했다.

1) 개인적인 취미나 흥미와 관련된 모임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지도 TIP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면 학교에서의 모임도 좋습니다. 단, 정규동아리와 같이 일괄적으로 조직된 모임보다는 자율동아리, 스터디그룹처럼 자기주도적으로 조직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더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2) 온라인 모임(혹은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4. (사실적 읽기) [답석 떡밥 물기] 각 인물에 관한 의심스러운 점을 정리해봅시다.

이름	의심스러운 점
이현수	
정한별	
고주원	(예) 서재에서 한참동안 나오지 않았다.(33쪽)
최은서	
김유정	

지도 TIP

이 작품은 등장인물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어지는 서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스펜스 추리소설입니다. 꼼꼼하게 읽기를 통해 작품 곳곳에서 작가가 뿌려놓은, 소위 ‘떡밥’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작품 후반에 어떤 식으로 풀어지는지를 추적하게 함으로써 소설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끔 할 의도로 제시된 활동입니다. 사건과 연관될 만한 소재나 행동, 대화 등을 정리하고 작품 내용을 추측하거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부분을 읽을 때 정리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도록 유도하면 흥미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1. (배경지식 쌓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목걸이」의 줄거리를 파악해봅시다.

▶ 참고 영상 : [목걸이] 기 드 모파상의 단편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감상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th4BvDDbXoY&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Y8-&index=9>

1-2. (비판적 읽기)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마틸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보기〉

“반전도 반전이지만, 난 이 소설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아. 왜냐, 이걸 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틸드를 욕할 거거든. 남편도 성실하고, 집에 하녀도 있는데 행복한 줄 모르고 허영심만 가득하다고. 하지만 마틸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현재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다들 지금보다 멋지게 살고 싶어서 학생은 죽어라 공부하고 어른들은 죽어라 일하는 거 아냐? 안 그런 척할 뿐이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 현재에만 머무르면 아무 발전도 없는 거라고.”

주원이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정한별의 말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마틸드 같은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1884년에 발표된 소설을 여전히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거겠지.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친구한테 비싼 목걸이를 빌리고, 파티에서 자기 것인 양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헐! 그 시절 여성의 지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어!”

마틸드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때만 해도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뒷바라지에 올인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었다고. 아니, 그리고 친구한테 목걸이를 빌리는 게 뭐가 나빠? 멋진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최대한 꾸미고 가야지!”

2. (추론적 읽기) <보기1>과 <보기2>를 참고하여 앞으로의 전개를 추측해봅시다.

〈보기1〉

현수가 내 손에서 봉투를 가져갔다. 한별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마음대로 읽어도 되나 싶었지만 현수는 이미 종이를 펼친 뒤였다.

편지를 읽은 현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주원이 종이를 낚아챘다.

“뭔데? 왜 그렇게 심각해?”

나도 호기심에 못 이겨 주원이 든 종이 위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너는 좋아하던 남학생이 다른 여학생과 사귀자 그 여학생에 관한 끔찍한 소문을 지어냈다.
그 소문은 학교 전체에 퍼졌고, 결국 여학생은 너 때문에 전학을 갔다.

〈보기2〉

소파 사이에 놓인 탁자에는 우리의 과거가 담긴 종이들이 흩어져 있다. 아무도 모른다고 믿었던 이야기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던 이야기들. 아이들에게서는 이제 그 어떤 다정함도 느낄 수 없다.

3.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3-1. (배경지식 쌓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에 관해 알아봅시다.

- ▶ 참고 영상: [읽은책책방]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세상에서 네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라니!!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o3WhCTPZexE>

3-2. (비판적 읽기) 다음은 ‘클로즈드 서클’에 대한 생성형 AI의 답입니다. 이 작품에서 ‘클로즈드 서클’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클로즈드 서클이 뭐야?

클로즈드 서클(Closed circle)은 추리소설에서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서, 그 공간에 있는 내부인들 중 한 명의 소행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 설정을 말합니다. 주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같이, 제한된 인원과 고립된 장소에서 사건이 벌어져 누가 범인인지 추리하는 재미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 주요 특징

- 1) 고립된 공간: 섬, 저택 등 외부와의 왕래가 끊긴 특정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 2) 제한된 용의자: 범인은 반드시 그 공간에 있던 내부인 중 한 명이며, 외부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 3) 추리 요소: 독자는 제한된 단서와 용의자들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 4) 예시 작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10명의 인물이 외딴 섬에 초대받아 한 명씩 죽어가는 클로즈드 서클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4. (창의적 읽기) 영상을 참고하여 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별의 행위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다.

- ▶ 참고 영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된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IUohH0u-Kko>

5. (사실적 읽기) [덥석 떡밥 물기] 각 인물에 관한 의심스러운 점을 정리해봅시다.

이름	의심스러운 점
이현수	
정한별	
고주원	
최은서	(예) 아이들의 일러스트를 그릴 만큼 그림을 잘 그린다.
김유정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1. (사실적 읽기)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책 제목	누구의 최애 소설인가?	누구에게로 온 편지인가?
『죄와 벌』		정한별
『폭풍의 언덕』		
	고주원	/
『노트르담 드 파리』		
	최은서	

1-2. (사실적 읽기) 각 편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봅시다.

정한별	
이현수	
최은서	
고주원	

2.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2-1. (추론적 읽기) 유정에게 온 편지만 없는 이유를 추측해봅시다.

〈보기〉

한별이 머리카락을 짜증스럽게 쓸어 넘기며 소리쳤다.

“아,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누가 이딴 짓을 벌인 건데!”

한별의 차가운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김유정, 너야? 네가 우리한테 편지 보냈니? 편지가 안 나온 사람은 너뿐이잖아!”

2-2. (추론적 읽기) 만약 한별이 지금 책을 달라고 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을지 추측해봅시다.

〈보기〉

“정한별, 넌 빨리 책 선물을 달라며 현수를 재촉하기도 했어. 네가 아니었다면 현수는 예정대로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에 책을 줬겠지. 넌 왜 그랬을까? 독서 토론도 끝났으니 편지들이 슬슬 발견되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나는 한별의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피해 윗자리에 앉은 현수에게 고개를 돌렸다.

2-3. (추론적 읽기) 유정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추측해봅시다.

〈보기〉

나는 마지막으로 은서를 바라봤다.

“가장 범인이 아닐 것 같은 너도 의심을 피할 수는 없어.

너도 이 별장에 오자마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으니까. 그사이에 얼마든지 서재로 가서 편지를 넣을 수 있었을 거야. 편지들이 들어 있던 전집은 금세 찾을 수 있었으니까.”

“난…… 가방도 안 메고 갔는데…….”

“편지 네 통을 굳이 가방에 넣을 필요는 없지. 네가 입고 있던 롱패딩 주머니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테니까. 게다가 넌 한별이가 패딩을 벗으라고 했을 땐 소스라치게 놀라며 거절했지만 가방은 벗어서 현수에게 줬어. 거추장스러운 패딩을 왜 굳이 화장실까지 입고 갔을까? 그리고…….”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 때문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3.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에 관해 생각해봅시다.

〈보기〉

어이, 너희들. 눈 좀 동그랗게 뜨지 마. 아빠한테 맞는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으니까. 원래 그 인간은 기분이 안 좋으면 손부터 올라가거든. 도대체 무슨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어. 별것도 아닌 일에 욕해서 엄마랑 나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제일 짜증 나는 건 성질을 잔뜩 부려놓고 자기가 먼저 사과하는데, 진심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는 거야. 갑자기 새 핸드폰을 들이밀거나 용돈을 주면서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지.

- ▶ 참고 영상1: [일타강사] '악의 대물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방치되면 그 대가는 사회가 돌려받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4c1glpykcwk>
- ▶ 참고 영상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우리 모두의 관심
<https://www.youtube.com/watch?v=Z331D9hccwc>

4.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4-1. (사실적 읽기) [답석 떡밥 물기] 유정의 말을 토대로 각 인물에 관한 의심스러운 점을 정리해봅시다.

이름	의심스러운 점
이현수	
정한별	
고주원	
최은서	
김유정	

4-2. (추론적 읽기) 4-1과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리했던 의심스러운 점을 비교한 결과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지도 TIP

활동지와 앞부분의 내용을 뒤적여가며 '나도 유정이 지적한 점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었어.'라든지 '이건 미쳐 생각치 못한 지적이야.' 등의 반응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독서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사실적 읽기) 각 인물이 독서모임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정리해봅시다.

이현수	
정한별	
고주원	
최은서	
김유정	엄마

2. (감상적 읽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은서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생각해봅시다.

〈보기〉

처음에는 나도 잘해줬어. 근데 같이 놀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쉬는 시간마다 보드게임을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개한테는 규칙을 일일이 설명해 줘야 하고, 말해도 잘 못 알아듣고……。 우리 무리에 있는 애들도 다들 개 때문에 힘들어했어.

그래서 내가…… 개를 따돌리자고 했어. 그냥 투명 인간 취급 하자고. 그다음 날부터 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하고, 단톡방에서 하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쉬는 시간에 우리한테 오면 쳐다보지도 않았어.

▶ 참고 영상: 친구의 투명인간 취급! 이 방법으로 안되면 관계를 끊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xU_UNTdKoEg

은서야. 네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3.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3-1. (사실적 읽기) 다음은 소설의 앞부분에서 유정이 충동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이번 장을 읽고 알게 된 유정의 충동에 관해 정리해 봅시다.

책을 들고 창가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다.
안 돼, 이 집에서는 절대로 안 돼.

3-2. (비판적 읽기) ‘클로즈드 서클’의 특징과 CCTV의 기능을 연관지어 설명해봅시다.

〈보기〉

클로즈드 서클(closed circle)은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외부와 차단시켜 범인과 용의자를 특정된 집단 안에 한정시키는 추리소설적 장치를 말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독자가 ‘범인은 이 안에 있다’는 전제 하에 추리를 즐길 수 있게 이끄므로써 긴장감을 높이고 독자의 몰입도를 강화시킨다.

나는 현관문 위쪽을 가리키며 황급히 돌아섰다. / “여기 CCTV가 있어.” 〈중략〉

“현관 위에 달린 CCTV가 전부야? 이 집에 뒷문 같은 건 없어? 현관이 아니라 뒷문이나 창문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집 뒤쪽에 CCTV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뒷문은 없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창문은 거실에 있는 통유리창뿐이고. 하지만 그리로 들어왔다면 현관 CCTV에 찍혔겠지.”

주원이 말했다.

“네 추리가 틀렸네, 이현수.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아. 대단한 거짓말쟁이 한 명이 우리 중에 섞여 있다고.”

4.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4-1. (추론적 읽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별점을 매기고 그렇게 별점을 준 이유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름	가능성 별점	이유
이현수	☆☆☆☆☆	
정한별	☆☆☆☆☆	
고주원	☆☆☆☆☆	
최은서	☆☆☆☆☆	
김유정	☆☆☆☆☆	

4-2. (추론적 읽기) 4-1에서 가장 높은 별점을 받은 인물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추측해봅시다.

〈보기〉

한별이가 악소문을 퍼트린 일과 은서의 초등학교 때 사건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어떻게’가 아니라 ‘왜’야. 우리는 3년 동안 잘 지냈잖아.

책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짓을 벌일 만큼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다고? 운영자인 현수가 독서 모임을 이끌며 우리에게 쌓인 게 많았을까?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는 소설을 좋아하는 주원이가 이런 편지들을 보내서 우리의 반응을 관찰하고 싶었을까? 제일 발랄하던 한별이가 스릴러 영화에나 등장하는 성격 이상자라도 되는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학폭 피해자인 은서가 이 모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를 괴롭히고 싶었을까?

난 도저히 이유를 못 찾겠어. 우리 중 한 명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

▶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보기1>과 <보기2>를 비교하여 유정이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과정을 따라가봅시다.

<보기1>

“면접실은 3층이야. 한 층 더 올라가자.”

선배의 온기 없는 목소리에 우리는 네, 하고 속삭이듯 대답한다. 그리고 선배를 따라 계단을 오른다. 선배는 들고 있던 면접자 명단을 바라보며 계단참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나는 입안에 남은 젤리를 삼키며 오른쪽으로 몸을 돌린 채 텅 빈 복도를 응시한다.

“어떻게 알았어?”

선배가 나를 흘깃 쳐다보며 묻는다.

“네? 뭐가요?”

“여기 처음 왔을 텐데 면접 보는 방이 오른쪽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아, 그냥…… 저도 모르게…….”

“그래? 혹시 재수생인가 하고. 작년에도 면접 보러 온 줄 알았지.”

선배는 별일 아니라는 듯 오른쪽 복도로 발걸음을 옮긴다. 역시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문을 지나친 뒤 세 번째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노크 소리가 컷가를 울리는 순간, 나는 또다시 그 별장으로 돌아간다.

무언가 찝찝했던 느낌, 이유를 알 수 없던 위화감이 떠오른다. 면접실 문이 열리자 아무리 애써도 물러나지 않던 그날의 안개가 산산이 흩어진다.

나는 생각한다. / 범인은 너였구나.

- 현재, 유정의 대학교 면접에서

<보기2>

은서와 나란히 도착한 2층의 짧은 복도에는 왼쪽에 문이 두 개, 오른쪽에 한 개가 있었다. 서재는 오른쪽 방이었다. 내가 들어갔다 나올 땐 분명히 문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서재에 갔던 주원이 닫고 나온 모양이었다.

아이들이 따라오는지 뒤돌아보는 동안 은서가 서재 문을 열었다. 내가 손짓하자 한별과 주원, 현수도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다들 은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사방에 가득한 책을 보고 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현수가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은서만 서재에 처음 들어온 거지? 정한별, 너도 여기 들어왔었어?”

“응! 그렇긴 한데 그냥 쓱 훑어보고 나왔지.”

- 과거, 독서모임에서

2. (감상적 읽기) 유정의 생각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나는 면접을 봤던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 주변은 온통 대학 입시 결과로 떠들썩했다. 누군가는 꿈꾸던 대학에 합격했고, 누군가는 재수를 결심했으며, 누군가는 모든 대학에서 떨어졌다. 우리의 학창 생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건 결국 누가 어떤 대학에 갔느냐였다.

▶ 유정의 말에 공감한다. 왜냐하면

▶ 유정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3.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3-1. (추론적 읽기) 앞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범인의 정체는 누구일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측한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그거 알아, 김유정? 난 그날 이런 생각을 했어. 너희 중에 누군가 범인을 알아낸다면 그건 바로 너일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너한테는 진실을 말해주기로 마음먹었어. 네 과거는 끝까지 밝혀내지 못해서 그런가, 그나마 네가 제일 괜찮은 애 같았거든. 다 대답해 줄 테니까 궁금한 것부터 물어봐. 아, 잠깐. 이 케이크는 마저 먹어도 되지? 맛있는 케이크는 도저히 못 참겠거든.”

“다 대답해 준다고?”

“응.”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

맞은편의 새까만 눈동자가 나를 차분히 응시했다. 나는 간신히 물었다.

“넌 도대체 누구야?”

3-2. (추론적 읽기)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여 작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추측해봅시다.

〈보기〉

“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끔은 현실이 소설보다 더 허구 같다니까. 그날 우리한테 솔직히 고백했으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 유정아.”

“아직 끝이 아니야. 다른 애들도 진실을 알아야 해.”

“어떻게?”

나는 잠시 침묵했다.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독서 모임의 운영자로서 네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어.”

4. (추론적 읽기) [떡밥 회수] 〈보기1〉과 〈보기2〉는 유정이 범인을 추리한 근거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1〉

“1년 전 그날, 우리는 다 같이 서재로 올라갔어. 한별이가 책 선물을 빨리 받고 싶다고 현수를 재촉했거든. 처음엔 주원리와 현수, 한별이가 앞장섰지만 여자 친구 얘기를 나누며 뒤로 처졌고, 자연스럽게 너랑 내가 맨 앞에서 건제 됐지.

나는 그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서재에 가봤기 때문에 서재 위치를 알고 있었어. 서재는 복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었고. 하지만 서재 문을 연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였어. 편지를 넣느라 미리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서재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

〈보기2〉

“독서 모임 〈더 클래식〉의 회원 최은서에게는 포도 알레르기가 있어. 하지만 1년 전 그날, 너는 포도가 올라간 케이크를 거리낌 없이 입에 넣었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면 보여줄게.”

나는 핸드폰에 담긴 동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그 애는 접시를 왼손에 든 채 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겨우 그거였어? 한별이는 포도 알레르기가 심하지만 난 그 정도는…….”

그 애는 말을 멈추고 자기 앞에 놓인 접시를 내려다봤다. 샤인머스켓이 촌촌히 올라간 생크림케이크. 이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지도 TIP

‘나도 이 부분이 신경쓰였다.’라든지 ‘그 부분은 미처 체크하지 못했다’ 등의 반응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1. (사실적 읽기) 빈칸을 채워 각 인물의 자신들의 잘못해 대해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이현수	프로그램 방영 중에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엄마를 설득해 방송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게 했다.
정한별	
김유정	
김재영	엄마

1-2. (감상적 읽기)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1-1의 인물 중 한 명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봅시다.

〈보기〉

- ▶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그것도 속죄의 한 방법이 아닐까.
- ▶ 후회해 봤자 소용없다고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후회는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 중요한 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달라지고 나아가려는 마음이 아닐까.

()야/아,

2.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2-1. (사실적 읽기) 이 작품에서 〈보기〉와 같이 고전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언급된 부분을 찾아봅시다.

〈보기〉

너희와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배운 건 결국 사람에 대해서였어. 인간은 나약하고 약점투

성이인 데다가 늘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지. 고전소설 속 주인공들만 봐도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

우리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주원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주원이 말이 맞아. 하지만 소설을 몰입해서 읽다 보면 어떤 주인공이든지 이해하고 공감하게 돼.”

2-2. (감상적 읽기) 2-1과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고전소설을 읽는 이유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고전소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해봅시다.

- ▶ 참고 영상1: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 이시한 작가
<https://www.youtube.com/watch?v=W4WS-cS7xH0>
- ▶ 참고 영상2: 대화의 희열 - 인간은 왜 소설을 읽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3CZN6mkZfDM>
- ▶ 참고 영상3: 장강명이 말하는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ju-IHKJ4guQ> : 북채

작품을 읽기 전에 고전소설에 대한 인식은



작품을 읽은 후에는

3. (감상적 읽기) 책을 함께 읽은 경험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보기〉

나도 예전만큼은 아니야. 특히 고전소설은 그날 일이 생각나서 그런지 손이 안 가더라. 다른 소설을 읽으려고 해도 왠지 흥이 안 나고. 함께 읽는 게 꽤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강제로 배웠다고나 할까

- ▶ 참고 영상: 독서모임, 인생을 바꾼 찐후기!
<https://www.youtube.com/watch?v=bci7CHWmgOQ>

4.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4-1. (배경지식 쌓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죄와 벌』에 관해 알아봅시다.

- ▶ 참고 영상 : 신념은 왜 항상 갈등을 유발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zXaXRrEYQ1A>

4-2. (추론적 읽기) 『죄와 벌』과 은서가 아이들을 찾아온 장면을 연결지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전하려던 메시지를 추측해봅시다.

〈보기〉

현관문 쪽으로 자꾸만 시선을 돌리는 아이들이 이제는 한없이 애뜻하게 느껴졌다.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끈 소설 『죄와 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무너지던 주인공을 다시 일으킨 것은 결국 그에게 남아 있던 인간다움과 사랑이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그러한 빛이 존재할 것이다.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속삭여 주는 빛, 그 빛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였다. 마지막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현수가 말했다.

“얘들아, 은서가 왔어.”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 다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 ▶ 참고 영상 : 사과할 타이밍을 놓친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
<https://www.youtube.com/watch?v=JBqTAmDkQ8Y>

1. 영상에서 '사과'에 대해 언급된 내용 중 인상깊었던 점을 정리해봅시다.
2. 과거에 저지른 잘못 중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생각해봅시다.
3.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4. 1~3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과할 대상에게 편지를 써봅시다.

()에게

5. 다음 작가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주지 않고 벼랑 끝으로 떠밀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다.